**15기 강지훈**

**학부전공: 국제개발학 / 정치학**

**직무 : 인사 (인문사회)**

1. **GA**

“기업시민이란 ~~다.”라는 표어 만들기 + 기업시민 실천 아이디어 1~2가지(business, society, people 중 택일)를 만들어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2시간~2시간반 안에 ppt 3장을 만들어 발표해야 합니다.

한 조에 5~6명의 지원자 + 선배사원 1명이 있는데, 선배사원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마디씩 조언을 해주십니다. 선배사원분께 중간중간에 포스코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시민 활동이나 활동하며 느꼈던 점 /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물어봤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유롭게 선배사원분께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1. **직무면접**

* 자기소개 + 인사직무 지원동기
* 인사제도를 기획할 때 인사제도가 어떤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직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인사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기업시민 보고서 읽어봤는지? (안읽어봤어도 되는데 괜찮은데 물어봤다고 하심)
* ESG 경영이 화두인데, HR을 통해 기업 ESG를 제고할 방안을 말해달라.

3명의 지원자, 2명의 면접관으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위의 질문들을 하셨고, 지원자들 답변 순서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인사 직무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본인의 직무 강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평소에 진짜 인사 직무에 대해 고민을 한 지원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에 본인만의 생각으로 답변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 **인성면접**

* 자기소개
* 지방근무 괜찮은지. 본인이 지방근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 포스코 포함 여러 군데에서 최종합격하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 개인 자소서/이력서 기반 질문 1~2개

위의 3가지 질문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질문이었고, 마지막에 자소서/이력서 기반한 질문을 한두가지 하셨습니다. 질문은 주로 면접관님이 자소서/이력서를 읽다가 생긴 궁금증을 질문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직무와 매칭이 안되는 점, 왜 유학에 갔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 **AP면접**

* 포스코의 스마트/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매체 선정안

35분 준비시간 동안 A4 용지 한 장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일단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주어진 자료가 잘 정돈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것도 아니고, 시간 순서로 정렬된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지원자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후에 받았던 질문 중 대부분은 “내가 방금 발표한 내용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 광고제작을 하는데 기획 몇개월, 제작 몇개월, 편집 몇개월이 소요됩니다”라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1. **혁신의용광로**

* 포스코 신 가치삼각형에서 공유의식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포스코이즘의 협력경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포스코 직원들이 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스코가 사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들 + 사외에서 시행하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역사에세이**

*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하나 고르고, 광복 이전의 역사적 사건과 비교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과거제와 천거제를 비교하는 본문 + 조선시대 관료 등용 방법에 대한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총평**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면접관분들이 모두 지원자들을 편하게 해주시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답변할 때 눈도 많이 쳐다봐주시고, 면접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감 있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